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나라”
토스카나주, 이탈리아서 조력자살 첫 법제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가 20개 주 중 최초로 조력자살을 법제화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토스카나주 의회는 전날 조력자살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찬성 27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의료 윤리 위원회가 환자의 조력자살 요청을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승인이 나면 10일 이내에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한 약물과 의료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의료진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조력자살 지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가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조력자살을 법제화한 지역은 토스카나주가 처음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1930년 도입된 형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할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생명 유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조력자살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현재는 의회의 입법적 대응을 촉구했지만 좌·우파 정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후속 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조력자살을 명확히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우제니오 지아니 토스카나 주지사는 “이 법은 단순히 객관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라며 “국가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강경 우파 성향의 이탈리아 정부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토스카나주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레푸블리카는 전망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언 14:12,27)

하나님,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행보로 수많은 영혼을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토스카나주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자살을 법제화하여 생명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의 질서를 대적하는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어두움의 영 사탄을 멸하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탈리아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부으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민주콩고 동부서 내전 이후 아동 성폭력 급증

내전이 격화 중인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아동 성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해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키부와 남키부 지역 42개 보건 시설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보고된 강간 건수가 572건으로 전주보다 5배 이상 증가, 이 중 어린이 피해자가 170명이다. 유니세프는 투치족 반군 M23과 정부군 등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2주간 북키부·남키부 지역에서 보호자 미동반 어린이 1,1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주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M23 반군이 저지른 즉결 처형과 강간, 살인 등 잔학 행위를 조사할 위원회를 출범했다.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23은 14일 이 지역의 마지막 주요 활주로 중 하나인 카부무 군 공항을 점령했다.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은 이 사태의 진짜 주범인 르완다에 대한 국제 제재를 촉구했다.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예레미야 30:17,19)

하나님, 민주콩고에 내전이 계속되는 중에 아동 성폭력이 급증한다는 가슴 아픈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정부군, 반군 할 것 없이 같은 일을 행하며 정의를 상실한 이들을 꾸짖으사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악을 행하는 죄인의 실상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폭력으로 짓밟힌 아동들을 만나주셔서 상처 입은 이들의 영과 육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살이 돌아나도록 고쳐주시며 진리의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민주콩고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 다시는 비천해지지 않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새롭게 하옵소서.

▲ 영국 급진 정당 의원들, '의회 기도' 폐지 요청

영국의 노동당 외 급진적 정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매일 아침 진행되는 공식 기도 시간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며, 기도 폐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이 전통은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지만, 이들은 현대 사회의 종교적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소속 닐 던컨-조던 의원은 하원 현대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기도 폐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으며, 조기 의정 동의안을 통해 해당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촉구했다. 던컨-조던 의원은 "매일 아침 의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이라며, "오늘날 의회에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원들이 있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동의안에는 노동당 의원 3명, 자유민주당 의원 3명, 녹색당 의원 2명,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 1명 등 총 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린도 전서 4:2,17)

하나님, 영국 정당 의원들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기도 시간에 대해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더욱 간절히 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나라를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 의원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가르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주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진 이 기도 시간이 종교적 행위가 아닌 주님이 영국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탁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의 불씨가 의회를 넘어 국민에게 흘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마존, 복음주의 부흥으로 영적 지형 변화...공동체 의식과 자립 열망도 나타나



브라질 북서부 아마존 지역에서 전례 없는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교회와 개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수 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가 아마존 지역의 신앙을 지배해 왔지만, 최근 복음주의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의 영적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CBN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아마존 강둑에 살고 있는 83세의 라모스(Ramos)는 이 변화를 직접 체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어릴 적에는 우리 공동체가 가톨릭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마존의 수많은 강줄기를 따라 복음을 전해왔다. 조수에 벙손(Josué Bengtson) 목사는 초창기 선교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예전에는 일꾼이 너무 적어 어떤 지역에서는 목사들이 10-15km를 걸어야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규모 교회들이 대부분 배를 가지고 있어 사역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에세키엘 산토(Esequiel Santo) 선교사는 1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2년간 정글에서 사역했다. 그는 “일주인과 강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산토 선교사는 사역 초기에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어 버스로 6일 동안 이동한 후 다시 배를 타고 6일을 더 걸려 아마존 분지 외곽에 도착했다. 이후 손으로 직접 노를 저으며 최소 15일을 이동해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으며, 때로는 한 지역까지 가는 데만 35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강변 마을마다 작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알베스 박사는 “브라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흥이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주의 교회의 확산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자립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작은 카누와 보트를 이용해 외딴 지역에서 예배와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브라질 대도시 교회들도 교육, 의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역 덕분에 아마존 지역의 복음주의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이 지역의 영적·사회적 풍경을 새롭게 정의할 강력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2,47)

하나님, 브라질 아마존에서 믿음의 증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을 일으키시고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며 떡을 떼는 한 몸 된 예수 교회로 세워져 단순히 지역 종교의 변화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찬미하는 이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넘어 열방에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아이티, 99% 가정이 끼니 거르고 있어

아이티의 대부분 가정이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유엔 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18일 전했다. 국제 구호단체 액션에이드(ActionAid)가 아이티의 제레미와 로조 지역에 거주하는 193가구(1,499명)를 조사한 결과, 아이티 가정의 99%가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95%는 지난 한 달 동안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든 적이 있었다. 67%는 갠단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 난민이며, 88%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이티는 인플레이션과 갠단의 도로 봉쇄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식비가 90달러(약 12만 9,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가구당 평균 8명이 생활하는 것을 고려할 때, 1인당 한 달에 11달러(약 1만 5,000원)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현지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레미에 거주하는 28세의 페두인은 “하루 걸러 한 번씩만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49세의 에멜린은 “500구르드(약 5,000원)로 가족을 먹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500구르드로 음식 한 품목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데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시편 33:18-20)

하나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갠단의 수도 장악 등으로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의 곤고함이 늘어가는 아이티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대로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국제 사회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식량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 또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주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의 기도로 아이티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땅이 주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잠비아 젊은이의 34%가 일자리 찾아 이민 생각한 적 있어

인구 2,000만 명의 잠비아는 25세 미만 인구가 60%를 넘고, 15-35세의 젊은이들이 국가 노동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경제 성장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2024년에 아프리카개발은행(ADB)은 잠비아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경제 성장에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월 20일, 범아프리카 연구네트워크인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에서도 잠비아 젊은이(18-35세)의 34%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당국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젊은이의 63%가 중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54%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직업을 구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24%에 달했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20%의 청년 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은 9%에 그쳤다. 2024년 4월에 커먼웰스재단(The Commonwealth)에서 발표한 글로벌청소년개발지수(GYDI)에서 잠비아는 183개국 중 15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지수는 15-2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고용, 건강, 평등, 시민참여, 안보 등 6개 지표를 가지고 산출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하나님, 국가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턱없이 부족해 직업을 찾아 해외 이민까지 생각하는 잠비아 청년들을 의탁드립니다. 나라의 경제 구조 개선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여러 문제와 숙제 앞에 위정자들이 먼저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기독교 국가인 잠비아에 더욱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게 하셔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군사로 세우소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국민 96% “신을 믿는다”... 개신교 33%



중미 국가 코스타리카 국민의 96%가 하나님 또는 어떤 신적 존재나 근원적인 힘을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최근 전했다. 코스타리카 국립대학교 (UNA) 산하 에큐메니컬 종교과학학과와 인구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코스타리카 국민의 종교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인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비율이 증가하며 로마 가톨릭 신자의 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인수의 수가 여전히 약 100만 명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나라의 인구는 2024년말 현재 520만 명이다. 응답자 중 73%는 어린 시절 가톨릭 신앙에서 자랐다고 답했으며, 개신교 신앙에서 성장한 비율은 23%였다.

현재 코스타리카 국민의 50%가 가톨릭 신자로, 33%(약 165만 명)가 개신교 신자로 조사된 것을 볼 때, 성인이 되면서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6%(약 80만 명)는 ‘특정한 종교는 없지만 신을 믿는다’고 답했다.

종교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가톨릭 신자의 다수는 55세 이상인 반면, 개신교 신자의 가장 높은 비율은 18-24세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 비종교적 신앙인(무교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은 25-34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교회 출석률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3명 중 1명(약 33%)이 매주 미사에 참석하며, 개신교 신자의 거의 절반(약 50%)이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종교를 가진 응답자의 70%가 교회에 헌금이나 십일조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자의 56%는 코스타리카가 세속 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79%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종교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국민이 낙태, 자살, 매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이혼과 여성의 비출산 선택(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에는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낙태를 반대했다. 항상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자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는 매춘을 반대했으나, 10%는 매춘이 ‘항상 허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시편 24:1,5-6)

하나님, 최첨단의 과학과 자신을 우상 삼는 현대 사회에서 신을 찾는 마음을 코스타리카 국민에게 주셔서 생명의 길 되시는 여호와께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 주께서 신앙에 반하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의를 따라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복음의 생명이 거침없이 흘러가 땅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코스타리카 되게 하소서.

▲ 미국 생명보호법으로 출산 증가..2만 2,000명 생명 구해

미국에서 주 차원에서 실시된 낙태 금지법 및 태아 심장 박동법(Heartbeat Acts)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2만 2,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라이프뉴스가 17일 전했다. 미국 의학 협회 저널(JAMA)이 발표한 최근 시행된 생명 보호(Pro-life) 법의 영향 분석 결과 낙태 제한이 시행된 주에서 출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텍사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법 시행 후 출산율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연구는 낙태 금지법이 특정 인구 집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미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 수혜 여성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JAMA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다. 앞서 텍사스의 출산 데이터를 분석한 세 개의 연구는 텍사스 태아 심장 박동법이 매달 약 1,00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노동 경제 연구소는 2023년 상반기에만 3만 2,000명의 생명이 최근 시행된 생명 보호법으로 구해졌다고 분석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언 19:21,23)

하나님, 낙태 금지법 및 태아 심장 박동법과 같이 주께서 주신 존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실시돼 수많은 태아가 지켜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법이 낙태 합법화를 고집하는 다른 주에서도 실시되어 무수히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진리를 떠나 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심령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교회를 통해 미국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옵소서.

▲ 파키스탄, 초콜릿 훔쳤다는 이유로 13세 하녀 살해

파키스탄에서 13세 소녀가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 고용주 부부에게 살해당했다고 19일 뉴시스가 BBC를 인용해 보도했다. 피해자 이크라는 지난 5일 병원에서 다발성 부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 예비 조사 결과, 소녀는 반복적인 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크라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8살 때부터 하녀로 일했으며, 2년 전부터 8명의 자녀를 둔 라시드 사피크 부부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월급은 한 달 23달러(약 3만 2,000원)에 불과했다. 이크라를 고용했던 라시드 사피크와 그의 아내 사나,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일했던 쿠란 교사가 체포됐다. 이 쿠란 교사는 이크라를 병원에 데려온 후 “그녀의 부모는 없다”고 말하며 병원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크라 사건을 두고 파키스탄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파키스탄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범죄라도 피해자 가족이 용의자를 용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용서는 재정적 보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언 31:8-9)

하나님, 부당한 폭력과 고문으로 생명을 잃은 이크라의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이를 애통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이크라와 같이 학대와 착취 속에 있는 파키스탄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파키스탄의 적은 무리인 교회가 주께서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땅을 위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파키스탄의 법과 제도가 주님의 공의 안에서 새롭게 개혁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